

# ‘춤추는 천장 들보’ 국가지정 보물 됐다

국내 최대규모 사찰 누각 ‘고창 선운사 만세루’  
독창성 가득한 건축물로 잘 보존돼 가치 인정받아

고창군이 ‘고창 선운사 만세루(高敞 禪雲寺 萬歲樓)’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065호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이하 만세루)’는 우리나라 사찰 누각(樓閣)으로는 최대 규모인 정면 9칸이다. 조선 후기 불교사원의 대형 누각건물이 시대적 흐름과 기능에 맞춰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이자 구조적으로도 당시 자체 획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창성 가득한 건축물로 잘 보존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만세루는 선운사의 기록물인 ‘대양부열기’(1686년)와 ‘만세루 중수기’(1760년)에 따르면, 1620년(광해군 12)에 중층 누각인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 재건과정에서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변화시켰고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맞배지붕)로 다시 지어져 현재까지 잘 남아 있다.  
중앙의 3칸은 앞뒤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좌우 각 3칸은 중앙의 고주를 세워 맞보를 거는 방식으로, 한 건물에서 두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적 안전을 꾀하면서 누각의 중앙 공간을 강조한 점도 만세루의 또 다른 특징으로 평가됐다.  
특히 자연스레 들로 갈라진 나무 등의 자연 목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마치 건물 상부에서 보들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창의성과 예술성뿐만 아니라 당시 목재 수급의 어려움을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 건축한 점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건축학적 특징과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해 국가지정문화



고창 선운사 만세루 사찰 누각.

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도지정문화재인 ‘고창 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삼거리 지식요근’, ‘남당회맹단’

등에 대한 전북도 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해 학술조사와 학술대회 등을 적극 추진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뮤지컬 ‘홍도1589’ 잠정 중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관광브랜드공연 뮤지컬 ‘홍도1589’을 잠시 멈춘다고 밝혔다.  
재단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속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태원과 불류센터 등 중심으로 한 수도권 내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공연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홍승광 상설공연추진단장은 “공연을 잠시 멈추는 것을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먼저이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홍 단장은 공연 재개 시점에 대해 “향후 코로나19 감염 추이를 지켜보며 도민 및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뮤지컬 ‘홍도1589’는 제3회 혼불문학상 수상작인 ‘홍도’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 작품으로 도내 방문 관광객 및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show/hongdo)와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피아노부터 작곡까지 50명 선발 교육

전북음악아카데미, 입학식 갖고 본격 교육 시작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는 최근 진수당 기인홀에서 신입생과 가족을 비롯한 전북대 교수진,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돌입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전북음악아카데미에 대한 소개와 신입생 축하공연 및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이 진행됐다.  
전북음악아카데미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차별화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올해 3월 설립됐다.  
올해 신입생들은 지난 4월에 진행된 공개 전형 등을 통해 피아노와 성악, 관현악, 작곡 전공

분야에서 50명이 선발됐다.  
이렇게 선발된 신입생들은 6월부터 12월까지 전공악기 실기교육을 비롯한 창의력 및 예술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등 총 1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전북도교육청의 지원을 통해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교육은 전북대 음악과 교수를 비롯한 국내 저명 교수 및 전문 강사진이 담당하게 된다.  
김관우 전북대 연구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 음악의 미래 인재들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는 최근 진수당 기인홀에서 신입생과 가족을 비롯한 전북대 교수진,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돌입했다.

## 가족친화 유관기관 연계 공모 선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가 2020년 가족친화 유관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해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및 직장문화 확산 필요에 따라 전국단위 확산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친화 인증을 위한 인증 전·후 컨설팅,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가족친화 인증기업과 함께하는 동행사업(공동체 사업) 등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2019년 기준 117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 시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07개 혜택(2019년 6월

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가족친화 인증 중소기업 대상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우대(가점1점 이내), 신용보증수수료 감면(산정보증료율 0.2%), 선도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최대1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  
센터는 1일부터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찾아가는 직장교육을 지원한다.  
이운애 센터장은 “가족친화 인증마크는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정겹게 어울리는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며 “도내 모든 기업과 기관에 가족친화 문화가 확산돼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원활한 가정친화연계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가족친화 확산 회의, 전북지역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등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jbwc.re.kr)나 취업지원팀 063)254-3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50세 이상 장·노년 세대의 ‘인생나눔’

전북문화관광재단  
‘인생나눔교실’ 본격 시작  
멘토봉사단 45명 선발  
11월까지 인문적 만남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세대 간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인 ‘2020 인생나눔교실’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4~5월에 걸쳐 올해 사업에 참여할 만 50세 이상의 장·노년 세대 멘토봉사단 45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 전주와 광주에서 ‘2020 인생나눔교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호남권 멘토봉사단을 최종 임명했다.  
‘2020 인생나눔교실’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일정이 변경됐으나, 온라인 성인지갑수업 교육, 기본소양 교육 등을 준비 중이다.  
이후 아동·청소년과 청년 멘티가 있는 기관 및 시설과 협의해 멘토링 운영이 갖춰지는 대로 파견할 예정이다.  
올해 ‘인문멘토링’은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진행하며, 연간 900여 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영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의 인생나눔교실은 지역 주관처로 선정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4개지역사회에서 인문 기반 활동이 뿌리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시작이 다소 늦어졌지만, 멘토봉사단의 인문 활동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편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은 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인생나눔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선배 세대(멘토)와 새내기 세대(멘티)가 서로의 삶의 무늬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문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도민 대상 ‘완주 웹툰스쿨’ 8일 개강

군, 6년 연속 창작체험관 선정 따라... 기초반·심화반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1일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유일의 명맥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완주군 웹툰창작체험관은 국비 1200만 원을 지원받고, 군비 12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웹툰 구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완주군 웹툰창작체험관(웹툰스쿨)은 전북 도내 유일의 지역형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전문가용 태블릿 13대, 웹툰 1217권을 비치하고 있다.  
웹툰창작체험관에서는 오는 8일부터 정규반 과정, 웹툰스쿨(기초반, 심화반) 프로그램을

개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반인까지로,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으로 50명이다.  
강좌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은 웹툰 제작용 태블릿 이용법, 웹툰 스토리 만들기, 클립스튜디오를 활용한 만화작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현직 웹툰 작가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며 진로체험과 창작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직접인 및 일반인은 웹툰 스토리 만들기를 통해 사회에 대한 관심을 승화시키고, 무미감각, 상상력과 창의력이 증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lib.wana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서 만나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장성 백암사에서 사전 녹화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2일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다담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손님을 만나 그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국악 연주를 함께 감상하는 공연으로, 이번 공연은 사찰음식의 대가인 정관스님(백암사 천진암 주지)과 대금연주자 김상연(전남대 국악학과 교수)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 철학과 출가 배경’ 등을 소재로 그녀의 삶과 스님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 가족들과의 관계, 음식에 대한 생각과 재료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음악 즐기기에서는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과 어우러진 상량산 풀이~청성곡, 김상연 가락 대금산조, 시나위 등을 통해 전통음악의 깊은 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모집

전주대박물관(관장 김진우)이 2020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0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진로개발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박물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학기는 신청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학기부터는 전주대박물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음에 새기다(도장 만들기), 컬러풀 원더풀·소원을 말해봐(부채 만들기), 선으로 묶는 아름다움(매듭 만들기), 손으로 그리는 마음(에코백 만들기) 등 맞춤 체험 프로그램은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전주대박물관(063-220-2159)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